

2020년 1월 7일 촬영한 사진은 사생활이曝光될까 봐 아이즈가 경계하는지 물어보기 위해 인형패션 전문몰인 명의 아이즈에게 내신 촬영만 요청할 수 없었는지, 어떤 촬영장은 그 때 전국의 40대의 아이즈의 촬영장이다.

“아빠, 에이즈는 몸 속에 흡혈귀가 들어가는 거래요.”

글 | 이장훈 · 개인사업

나는 다소 영뚱한 구석이 있는 중학교1학년인 아들과 초등학교3학년인 딸을 둔 40대 초반의 가장이다. 성장하는 자녀를 둔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번쯤 겪어야(?) 할 필수 과정중의 하나가 갑작스러운 성에 관련된 질문과 그에 따른 적절한 답변일 텐데,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주말 오후에 아들녀석과 정규방송을 보고 있다 지루해져 케이블 방송의 채널을 돌리던 중 미국 뉴스방송 광고에서 에이즈광고 끝에 커다란 글씨로 AIDS와 함께 전화번호를 남기는 장면이 있었다. 이때 그 장면을 보던 아들녀석이 “아빠 저거 에이즈 걸리면 전화하라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는 에이즈환자 별로 없나봐. 저런 광고 한번도 본 적 없거든. 그리고 아빠 우리 반 애들이 얘기하는데 에이즈 걸리면 몸속으로 뱀파이어 세포가 들어간대, 그러면 몸 안에 들어간 뱀파이어 세포가 자라면서 몸속에 있는 피를 다 빨아먹어서 결국은 사람이 말라죽는 거래.” 이들은 연속해서 “아빠, 그리고 뱀파이어는 외국 사람이라 우리나라 말을 못하니 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이즈에 잘 안 걸리는 거래.” 라고 말함과 동시에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아빠, 그런데 내가 에이즈를 고칠 방법이 갑자기 떠올랐어” 한다. 나는 웃으면서 “그게 뭔데?” 하며 되물어 주었

다. 이들은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의기양양해 가지고 “일단은 에이즈 환자들에게 신부님을 모시고 가는 거야. 가서 신부님이 기도하고 십자가와 마늘 보여주면 뱀파이어들을 모두 다 죽일 수 있어.”

에이즈에 대한 오해와 공포, 교육으로 없애야

나는 순간적으로 멍해지며 에이즈 감염을 마치 공포만화 속에 나오는 내용처럼 알고 있는 아들이 한심했지만 이번 기회에 에이즈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려 줘야겠다는 생각에 ‘에이즈는 그런 것이 아니꼬’ 라고 시작하는 찰나, “그렇다면 나는 과연 에이즈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나?” 라는 의문과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아빠가 오늘 에이즈에 대해서 알

려줄 테니 잘 듣고, 만일 아빠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서 갖다 줄게.” 라고 하며 말을 시작했다. “에이즈는 우리나라말로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병이고 아빠가 알기로는 중부 아프리카 녹색원숭이로부터 사람에게 옮겨와 주로 남녀의 성 관계나 같은 주사기를 사용했을 때 옮겨지며 에이즈에 감염된 엄마의 수유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몸 안에 뱀파이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의 정액이나 혈액을 통해 HIV 라는 바이러스가 옮겨져 상대방 몸 안의 면역기능을 파괴시켜서, 조그마한 질병이나 감염에도 보통사람보다 훨씬 더 잘 걸리고 더 위험하며 완치시킬 치료제도 현재는 별로 없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거란다.

그리고 감기처럼 학교

에 있는 친구나 동

생으로부터 쉽게

옮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악수하거나 같은

컵을 사용해서는 에이즈가 옮

는 것은 아니고 또한 같이

산다고 해서 감염 되

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들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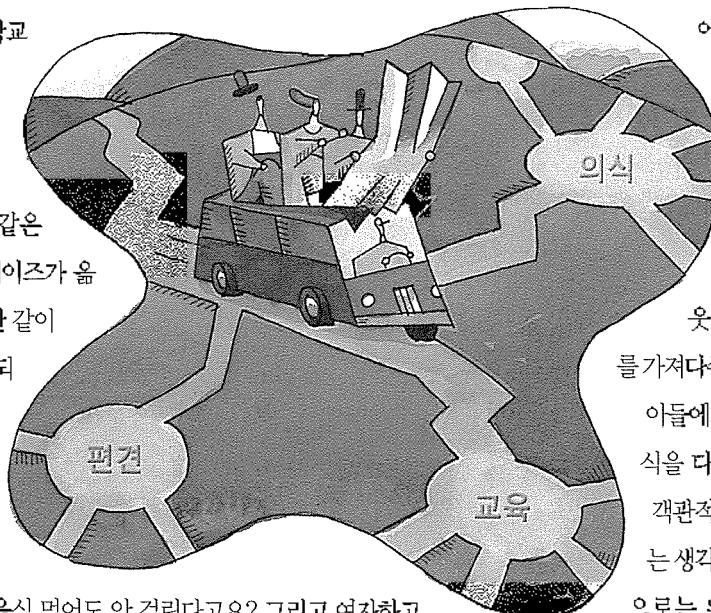
석이 환한 표정을

지으며 “같이 살아

도 안 걸리고 같이 음식 먹어도 안 걸린다고요? 그리고 여자하고

사랑해야 걸릴 수 있는 병이며 아직 나는 걱정할 필요 없겠네 뭐...” 라고 하며 쉽게 생각해버린다.

“그런데 얘야, 에이즈는 쉽게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병이지만 일단 걸리면 현재로서는 완전히 낫게 할 치료제가 없는 상태이고 그 내용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에이즈 걸린 환자들을 못된 사람처럼 완전히 왕따 취급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생활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하고,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되어 여자를 만나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에이즈



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거야.” 손짓도 해가며 다소 높은 어조로 열강(?)을 하고 있었는데 킬킬거리는 소리가 나왔을 처다보니 아들녀석은 어느새 만화영화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은

지식이 아닌 의식의 문제가 아닐까

다시 아들에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부엌에 있던 아들 엄마가 다가와 “됐

어요. 충분히 알아들

었을 거예요. 나

중에 조금 더

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열강

부탁해요”라고

웃으며 따뜻한 녹차

를 가져다주었다.

아들에게는 알고 있는 상

식을 다 동원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잘 설명했다

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 편

으로는 웬지 개운치 않았

다. 나는 과연 에이즈 환자에 대해 정말 그렇게 아무문제없이 대할 수 있을까. 머리는 알고 있어도 가슴으로는 나도 아들과 다름없이 막연한 공포심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돌아본 창밖에는 어느새 붉은 노을이 물들어 있었다.